

제418회 국회  
(정기회)

##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일(금)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1

(14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김건희 증인, 이원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분 손 드셨는데요. 그러면 간사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22대 들어서 일반증인이 510명입니다. 지난해 189명, 재작년에 163명이었습니다. 기업인 증인도 예전에는 80명, 90명 수준이었는데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욕하면서 다투는다고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겁니까? 검찰이 된 겁니까?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여 명의 증인들 중에 20명 가까이가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출석을 요청했는데 출석하거나 출석 안 한 분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니까? 증인들은 인권도 없습니까?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특정한 증인에 대해서 왜 그분들한테만 동행명령장을 발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1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부른 이런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행명령장 발부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 국감 증인·참고인 이거 보십시오. 22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국회입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사법기구입니까?

이렇게 권한 남용을 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하고 박찬대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동행명령장 관련된 의사진행 취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여러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당 측에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정감사의 장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신청한 증인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니까?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과거에 증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입법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부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항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개인에 맡긴다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개인입니까? 국가의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이 개인입니까? 안 나오면, 입법부에서 나오라고 하면 비서실장이 오히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5선 의원을 했던 비서실장이 증인들을 비호하고 ‘가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장에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 발언하시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어제 민주당 원내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봉투 핵심 전달책 역할을 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윤 전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 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6명은 검찰의 출석요구조차 공개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최종 통첩을 했다는데 출두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 분 한 분 기승전 탄핵, 오늘도 여기에서 민주당 의회 독재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천개입이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 5명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을 의결해 놓고 또 오늘 동행명령장을 꼭 집어서 창피 주고 기승전 마녀사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민주주의, 뭐 그동안 특검, 여러 가지 선례를 하는데 본인들의 얼굴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본인들이 의회 폭거를 일삼고 있는지 또 오늘 동행명령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 일방주의 의회 운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께서 보여 주고 계신 겁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서미화 위원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분의 증인들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본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21그램 대표 등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땀땀하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몇몇 증인들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감장에 불출석했고 동행명령장 수령마저도 고의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이번 국회에서 탄핵, 특검, 청문회밖에 더 한 게 있습니까? 금투세 폐지 같은 민생은 지금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증인들 불러서 뺄 하면 겁박하고, 증언거부권 있는 증인한테 행사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증인 불러 놓고 3분의 1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보고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해요. 이런 식의 비민주적인 또 독재적인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동행명령은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연간 한두 번 쓸까 말까 했던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 하자고 이렇게 해서 계속 증인들 불러 대고,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저번에 관저에 경호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쇼하러 민주당 의원들

거기까지 가서 쇼하고 왔어요. 그 쇼를 지금 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왔던 증인들도 대부분 법사위 상임위 때 다, 법사위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 때도 다 나와서, 나와도 제대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법사위에 김오진 증인 왔었는데 질문 없이 갔습니다. 송호중 증인은 저번에 와 가지고 충분히 신문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인들에 대해서 무작정 동행명령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다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 동행명령 하는 부분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대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운영위원회까지 와서 검찰의 나팔수가 되신 것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검찰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동료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검찰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면 ‘아, 특검의 이유가 하나 더 늘었구나.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 정치적인 사유도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2년 전,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 앉아 가지고 ‘웃기고 있네’ 써 가지고 벌서고 있던 게 어제 같은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 가겠습니다.

야당이 여당의 증인 목록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요. 이제 명 대표도 그 증인 출석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원불상의, 미상의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부르겠다는 겁니까?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부를 수 없는 그런 증인 명단을 가지고 와 놓고 여당의 의견을 묵살했다라고 하는 것 헌법기관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다 차치하고, 쓸데없는 내용까지 끌고 와 가지고 국정감사 방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행명령을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이 스물아홉 분입니다. 그런데 일곱 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권위가, 국회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영부인이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휘장을 달고 황제 외유를 다녀온다든지 호화 쇼핑을 한다든지. 그때 야당이던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될 그런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뻔히 나오지도 않을 분을 알면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못 나오지요. 그러니까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쇼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켜야 속이 시원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위원장님께 지금 우리 국회의 권위를 이렇게 스스로 추락시킨, 우리 운영위원회 이렇게 운영한 위원장님이 이 증인들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의 권위가 살 겁니다.

그리고 아니, 문재인 정부 국감이 아니라고…… 그러면 권력형 비리는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까? 윤석열 정부 지나고 나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국정감사 안 할 겁니까? 야당이 하듯이 여당도 나름대로 국정을 바로잡을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하는 통계 조작과 원전 경제성 분석 조작 이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로써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겠다는데 왜 못 부릅니까?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증인만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찬대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이렇게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다음, 정진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정진욱입니다.

어느 분은 법사위에서 뺄 맞고 운영위에 와서 분풀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헌정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영부인을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영부인……

○강명구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진욱 위원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원모 증인과 황종호 증인 안 나온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 준수입니다.

이것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임이자 위원 말 가려서 하세요!

○정진욱 위원 대통령 업무 보좌는 그렇다 칩시다.

○강명구 위원 뭐 무식! 누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정진욱 위원 공무상 비밀준수……

○김정재 위원 정말 무식한 국회의원인데. 말을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정진욱 위원 자, 증·감법 4조 보세요.

○강명구 위원 대통령한테 무식하다니요!

○정진욱 위원 말씀 들으세요!

○김정재 위원 무식한 기준이 뭡니까, 무식한 기준이?

○정진욱 위원 말씀 들으세요!

○김정재 위원 뭘 들어요!

○정진욱 위원 무식의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정재 위원 뭘 들어요! 말이 말 같지 않은데 뭘 들어요!

○정진욱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도 무식하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세요. 4조가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겁니다.

○강명구 위원 대통령 모셔 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무식하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찬대 강명구 위원! 강명구 위원!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정진욱 위원 말 좀 합시다, 강명구 위원.

○위원장 박찬대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강명구 위원 대통령 안 모셔 봤어요?

○정진욱 위원 국회로부터……

○고민정 위원 모셔 봤어요.

○위원장 박찬대 발언하고 있잖아요.

○강명구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나 돼요?

○이소영 위원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장내 소란)

○정진욱 위원 제가 꼭 ‘무식한 오빠’, ‘철없는 오빠’ 해야겠습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무식한지 무식하지 않은지 제 이야기를 들어 줘 보세요.

○강명구 위원 말씀을 가려 하세요!

○정진욱 위원 4조……

○강명구 위원 말씀 가려 하세요!

○양문석 위원 강명구!

○강명구 위원 말씀 가려 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토론 중단하겠습니다. 토론 중단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마무리하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찬대 정진욱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토론은 중단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관한 조항입니다, 4조는. 국회로부터 공무원이 증언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서류에 의하면 ‘공무상의 비밀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분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소속입니까? 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

실 행정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공무상 비밀 준수라고 써 놔습니다. 이것 무식한 것 아니면 뭐 철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왜 토론 안 해요?

○위원장 박찬대 토론을 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국 위원 아니, 왜 말씀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강승규 위원 토론해야지요.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라면……

○위원장 박찬대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요.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보장해 주셔야지……

○강승규 위원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면 이것은 의결하면 안 되지요. 토론해야지요.

○위원장 박찬대 마지막으로 배준영 간사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박성준 간사님……

○강승규 위원 더 토론하세요. 토론하세요.

○정성국 위원 아니, 말씀 좀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지금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국 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위원장님?

○강승규 위원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면 이것 운영위를 못 해야지요.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정당하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주의를 드렸는데요.

○강명구 위원 일국의 대통령보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지를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

○정성국 위원 아니, 저는 발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자, 그러면……

○강명구 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하시고요. 강명구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박찬대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에게 경고까지 날렸잖아요. 대통령에게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 날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찬대 제가 경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발언하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끼어드는 사람들에게.

○강승규 위원 첫 번째 끼어드는 사람만 경고를 날리고……

○위원장 박찬대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예의를 갖추지 않은 분에게……

○위원장 박찬대 강승규 위원님이 지금 가장 많이 끼어들고 계세요.

○강승규 위원 대통령께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을 경고장 안 날립니까?

○위원장 박찬대 강승규 위원님,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입법부의……

○위원장 박찬대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운영위 위원장 하는 것도, 다 여야가 협의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사회자는 진행하는 겁니다.

○정성국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그냥.

○위원장 박찬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조용히 좀.

○정성국 위원 제가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장도 아닌데?

○위원장 박찬대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토론하는 분위기입니까?

○정성국 위원 말씀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대 손 내리세요.

○강승규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지 말아야지요.

○강명구 위원 지킬 건 지켜야지요. 일국의 대통령한테 무식하다니요. 그게 말이나 돼요?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토론하고 싶어하는 두 분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고민정 위원님 토론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정성국 위원 일단 끼어들지 마세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세요.

○전용기 위원 좀 들읍시다.

○정성국 위원 민주당도 들어 준답니다.

○노종면 위원 들어 보지요. 정 위원님 말씀 듣지요.

○정진욱 위원 저는 끼어들 권한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도 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잘 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자리에 가 계세요.

정성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끼어들면 옆에서 뭐라고 야단쳐 주세요.

○고민정 위원 정 위원님, 하세요.

○전용기 위원 한번 들어보실게요.

○정진욱 위원 저는 끼어들 권한 있습니다. 권한 행사할 겁니다.

○이소영 위원 하지 마세요.

○정성국 위원 옆에서 동료들이 하지 말라잖아요.

○정진욱 위원 아니요, 할 겁니다.

○정성국 위원 동료들이 하지 말라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위원장 박찬대 정진욱 위원님!

그리고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저 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토론이 안 이루어질 정도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이 순한지는 몰라도 사악해요.

○정진욱 위원 사악해요?

○임이자 위원 대통령보고는 무식하다면서요!



-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 양문석 위원 정성국 위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 정진욱 위원 김건희 여사께서 내린 평가예요.
- 위원장 박찬대 정진욱 위원님도 좀 조용히 하시고.
- 고민정 위원 사악하다는 말 사과하세요.
-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제가 사악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민석 위원 사과하세요, 사과!
-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나한테 경고한 것부터 사과하세요, 그러면!
- 고민정 위원 뭘 사과해요?
- 위원장 박찬대 끼어들지 말라고……
- 임이자 위원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경고하신 거예요?
- 고민정 위원 사악하다는 말이 솔직히 잘못됐지요, 솔직하게.
- 임이자 위원 내가 위원장님한테 경고받을 짓, 뭘 잘못했길래 경고를 받아야 돼요?
- 위원장 박찬대 사악하다니……
- 임이자 위원 동료 위원끼리 무슨 경고예요, 경고가!
- 박성준 위원 위원장한테 사악하다니 무슨 말이야, 지금!
- 정성국 위원 아니, 대통령한테 무식하다는 말도 했잖아요.
- 임이자 위원 나한테 경고한 게 사악하다는 말이에요.
- 고민정 위원 사악하다고 말해도 돼요?
- 강승규 위원 위원에게 경고를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찬대 사악하다는 것 뭘니까?
- 임이자 위원 위원한테 같은 위원끼리 경고하는 게, 무슨 경고예요?
- 고민정 위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요.
- 임이자 위원 나한테 경고한 게 사악하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 박성준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 모경종 위원 위원장이시잖아요. 정성국 위원님 이야기 들겠습니다.
-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신다 하셨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박찬대 임이자 위원님, 진짜 경고합니다.
- 임이자 위원 아까는 가짜 경고였어요?
- 강명구 위원 무슨 경고를 자꾸 하신다는 겁니까?
- 강승규 위원 아니 사회자가, 위원장이 무슨……
- 위원장 박찬대 사회자를 향해서, 운영위원장을 향해서 사악하다니요!
- 강명구 위원 무식하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제지하셔야 되지……
- 고민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사악하다고 하는 말은 지금 넘어가도 됩니까?
- 강승규 위원 먼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나한테 경고한 것부터 사과하세요, 그러면.
-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정성국 위원 발언하면 되잖아요.

○강명구 위원 제지했으면 되잖아요.

○박성준 위원 그만 방해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발언 없어진 거예요?

○위원장 박찬대 토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왜 끄시는 거예요?

○강명구 위원 무식하네, 무식하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토론 종결 요청을……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좀 마련을 해 주세요, 말하게.

○위원장 박찬대 아니, 이렇게 운영위원장한테 사악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순서대로 토론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 그리고 보시면 여기 예전에 이미 다 동행명령장 발행한 사람에 대해서 또 발행했어요.

○위원장 박찬대 간사님한테 하세요, 간사님한테. 간사 간에 얘기하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한대로 발행하실 겁니까?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내가 사악하다고 한 것 사과할 테니까, 무슨 조항 갖고 저한테 경고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고하신 겁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한 발언 가지고 왜 경고하십니까?

○위원장 박찬대 경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뭘 갖고 위원장님이 경고하신 겁니까? 뭘 잘못했어요?

○위원장 박찬대 회의의 질서 및 유지, 145조 1항에 따라서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이 뭘데 나한테 경고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찬대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그런데……

○위원장 박찬대 들어가서 앉으세요, 빨리.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동행명령장을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발행할 수 있는 겁니까, 같은 국감에서?

○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다른 법사위, 행안위에서 이미 동행명령장을 다 발행했는데 여기서 굳이 또 다시 그렇게 발행해 갖고……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원내대표시잖아요.

○위원장 박찬대 나 원내대표지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하지요.

○위원장 박찬대 그렇지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런데 법사위, 행안위, 다른 곳에서 이 동행명령장을 이미 발행해 갖고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 또……

○위원장 박찬대 이행이 됐습니까?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여기는 대통령실한테 하는 국정감사장이잖아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잠시 정회하고 간사 간에 협의하세요.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슨 간사 간에…… 의결하십시오.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제 정리하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동행명령장을 이렇게……

○위원장 박찬대 빨리 앉으세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간사 간에 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빨리 앉으세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나한테 경고한 것 취소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앉아서 얘기하세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진행을 잘 하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냥 진행하시니까 그렇지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앉아서 안 주잖아, 발언권을.

○위원장 박찬대 빨리 앉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발언 기회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찬대 빨리 앉으세요.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앉으세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박찬대 앉으세요, 빨리!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부터 경고 취소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빨리 앉으세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경고 취소하세요.

○위원장 박찬대 무슨 경고를 취소합니까?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이 뭔데 나한테 경고하세요?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뭔데라니요! 임이자 위원 그만 방해하세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국회에서 내가 발언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왜 경고하시는 겁니까?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만하세요, 줌!

○임이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빨리 취소하세요.

○박성준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만하시라고.

○배준영 위원 경고를 무슨 두 번이나 줍니까?

○위원장 박찬대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165조에 따라서 국회 회의를 지금 임이자 위원이 계속 방해하고 계세요.

○임이자 위원 뭘 방해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나한테 경고하니까 그렇지. 위원장이 뭔데 나한테 경고를 해요?

○위원장 박찬대 제가 국회법 관련 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요.

○강승규 위원 누가 폭력을 했어요?

○위원장 박찬대 지금 회의를 방해하고 계세요.

○강승규 위원 언제 어떤 방해를 했는데요? 발언도 못 합니까?

○고민정 위원 저희가 방해받고 있어요.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2분 주세요, 2분 아까 주신 것.

○강승규 위원 발언도 못 해요?

○김정재 위원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배준영 위원 아니, 동행명령장 백번 발행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찬대 좀 조용히 계세요.

○노종면 위원 필요하면 하겠지요.

○배준영 위원 이게 무슨 딱지입니까?

○노종면 위원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간사님이 정리를.

○김정재 위원 뭘 정리를 해요?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들 종합해 가지고 정성국 위원 2분 토론 해 주시고요. 고민정 위원 토론 2분 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잘 들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동행명령장, 지금 증인 여기에 여사가 두 번째 들어가서, 지난번에 동행명령장 발급해 가지고 가셨지요? 그 액션은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또 하신다고 가서 가지고 시간 소비 하지 마시고, 여사께서…… 지난번에 가서 가지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 진행 되게 하려면 이런 무리수 안 두시면 좋겠어요.

끼어들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한 명도 안 받아 줘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보다 증인 채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도 몇 명이라도 받아 줘야 저희가 물러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뭐든지 정도가 있고, 180석이 있고 108석이 있으면 그 108석에 대한 권한도 인정해 주셔야지요. 그 뽑은 45~46%의 국민들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 주지 않으시고 민주당에서 마음껏 다 증인 출석시키고 동행명령장 발급하겠다, 저는 이것 국민들께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까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께서 무식하다는 표현을 하실 때 옆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말 한 거라 했지만 사실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요. ‘무식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인정하셨어요. 김건희에 ‘여사’ 붙이자는 것 민주당 위원님들도 인정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비판을 넘어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고민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운영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안은 다른 상임위에서 또 논의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증인 채택한 이런 사례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는데, 없지요. 김윤옥 여사도 그런 적이 없고 김정숙 여사도 그런 적이 없고 권양숙 여사도 그런 적이 없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봐요. 그냥 시사잡지입니다. ‘김건희의 나라’라고 버젓이 적혀 있어요. 저희 야당 위원들은 이런 것 보면서 즐거운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즐거운지 아십니까? 심지어 BBC를 비롯해서 해외 외신들에서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끄러운 몫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헌정사상 최초로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느냐?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주가조작, 허위 학력, 양평고속도로, 각종 문자들, 인사개입, 공천개입. 그런데 뭐 하나 해명된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여사님들 계셨어요, 여당 쪽도 있고 야당 쪽도 있고. 이렇게 표현됐던 여사님이 있었습니까? 저게 민주당이 프레임을 너무 잘 씌워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로 유능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무식하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에게 무식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의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단어를 보고 경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선거기간에는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유의 말씀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희도 경악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김정재 위원** 경악스러운 단어? 이재명 형수 욕설 한번 들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 박찬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정말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찬대** 김정재 위원님, 발언권 얻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아니, 이재명 정부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발 좀.

○**강승규 위원** 이재명 대표도 오늘 증인 신청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묵살하셨어요.

○**전용기 위원** 이재명 정부예요?

○**김정재 위원** 이재명 불러야지, 이재명!

○**강승규 위원** 예, 이재명 대표도 오늘 증인으로 신청했었어요. 제가 이따가 낱낱이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김정재 위원** 대한민국을 경악케 하는 것은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위원장 박찬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지율 17%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김정재 위원** 이재명 것 들어야 돼, 이재명 것.

○**이소영 위원** 반성을 해야지.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 아니, 이의가 있는데 왜 이의가 없어요!

○**위원장 박찬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거수 표결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독재예요, 독재!

○**위원장 박찬대**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정재 위원** 아니, 뻔한 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독재지요, 독재. 민주당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재명 아바타만 할 겁니까? 이재명 판결이 두려워서 이따위 짓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찬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아바타 아니에요.

○**전용기 위원** 이재명 없으면 말 못 해요? 이재명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찬대**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아바타가 아니지. 자식들이지, 아버지로 모시니까.

○**모경종 위원** 오빠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전용기 위원** 이재명 없으면 말을 못 합니다, 아예.

○**위원장 박찬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정진욱 위원** 김정재 위원님, 김건희 방탄 정도로만 의정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 정도 진심 갖고 하세요.

○**정성국 위원** ‘여사’ 붙여 주세요, 여사.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정진욱 위원** 김건희 방탄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진심 갖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라고요. 그러면 10선 할 겁니다.

○**김정재 위원** 무슨 방탄입니까?

○**위원장 박찬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위원** 누가 10선 한단 말이에요?

○**정진욱 위원** 김건희 방탄하는 그 열성으로 의정활동 하시라고요. 그러면 10선 한다고.

○**정성국 위원** 위원님, ‘여사’ 붙이세요.

○**강민국 위원** 말 조심하세요, 말. 정진욱 위원.

○**위원장 박찬대** 동행명령의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동행명령장 전달)

그러면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 위원(27인)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유정 고민정 권영진 김민석 김성희 김정재 노종면

모경중 박성준 박찬대 배준영 서미화 신장식 양문석 윤건영 윤종균 이소영  
임이자 전용기 정성국 정진욱 주진우 천하람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주성훈